



쌀 맥주 제조용 키트로 맥주 간편하게 만들자!

2018년
10월 다섯째주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October

VOL. 207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고기능성 딸기 신품종
개발 나서

정책동향

전남도, 채소가격
안정제사업 확대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축산업도 스마트팜
시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4 ~ 11도, 최고기온 : 17 ~ 20도)보다 낮겠으나,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 ~ 3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한육우 사육 및 가격전망
- ▶ 돼지 사육 및 가격전망
- ▶ 육계 사육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8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곡성군, 석곡농협 유기농 백세미 수매 및 홍콩수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3

- ▶ 전남농업기술원, 쌀 맥주 제조용 키트로 맥주 간편하게 만들자
- ▶ 전남농업기술원, 석회유황 종자소독으로 벼 키다리병 크게 줄어
- ▶ 전남농업기술원, 겨울철 사료작물 적기에 파종합시다
- ▶ 전남농업기술원, 내년 벼농사 준비 지금부터~
- ▶ 전남농업기술원, 고기능성 딸기 신품종 개발 나서
- ▶ 현미 효능 살리고 밥맛은 높이는 1% 미세도정
- ▶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 개발
- ▶ 무 복합 파종기로 농가 일손 걱정 뚫
- ▶ 시설재배지 농사, 병해충 방제부터 시작해야

6. 정책 동향 23

- ▶ 전남도,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확대
- ▶ 전남도·해남군, 농수축산물 가공 5곳과 투자협약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5

- ▶ 곡성군, 더 간편하고 더 맛있는 토란 가공품 개발
- ▶ 고흥군, 쌀 품질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 ▶ 무안군, 스테비아를 이용한 기능성 양파 특허 획득
- ▶ 장성군, 신소득 컬러과일 뜬다

8. 해외 농업정보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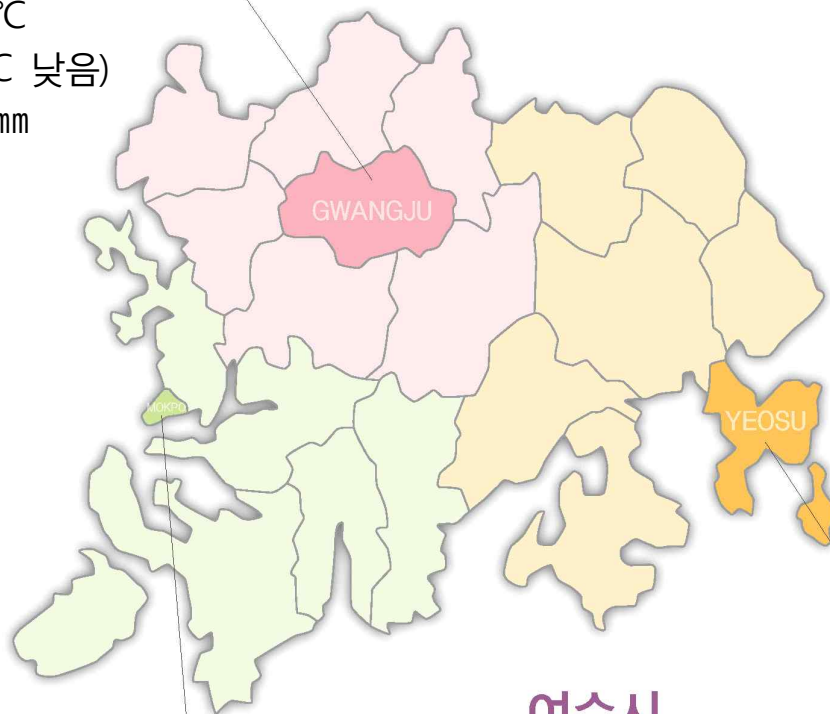
- ▶ 태국, 과일 시장 동향
- ▶ 일본, 사과 생산 및 수출동향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0.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3

- ▶ 축산업도 스마트팜 시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마음이 넉넉해지는 체험 여행
- ▶ 청렴한세상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2.1℃
(평년대비 0.9℃ 낮음)
- 최고기온 : 18.0℃
(평년대비 1.9℃ 낮음)
- 최저기온 : 7.2℃
(평년대비 0.9℃ 낮음)
- 강 수 량 : 1.8mm



목포시

- 평균기온 : 13.3℃
(평년대비 0.1℃ 높음)
- 최고기온 : 18.4℃
(평년대비 2.1℃ 낮음)
- 최저기온 : 9.1℃
(평년대비 0.7℃ 낮음)
- 강 수 량 : 1.5mm

여수시

- 평균기온 : 13.9℃
(평년대비 1.2℃ 낮음)
- 최고기온 : 18.0℃
(평년대비 1.8℃ 낮음)
- 최저기온 : 10.6℃
(평년대비 1.2℃ 낮음)
- 강 수 량 : 1.6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한육우 사육 및 가격전망

1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상승 전망

- 11월 도축 마릿수는 거세우 출하예정 마릿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1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 전망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1 ~ 2세 사육 마릿수 증가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증가 예상

돼지 사육 및 가격전망

11월 돼지 도매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

- 9월 총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수 증가로 자돈 생산이 늘어 전년 동월(1,149만 마리)보다 1.3% 증가한 1,164만 마리
- 11월 등급판정 마릿수는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많은 162 ~ 164만 마리 전망
- 11월 돼지 도매가격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하락한 4,000 ~ 4,300원/kg 전망

육계 사육 및 가격전망

11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낮은 1,200 ~ 1,400원/kg 전망

- 11월 전체 도계 마릿수는 사육 증가로 전년보다 3.1% 증가 전망
- 도계 마릿수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낮은 1,200 ~ 1,400원/kg 전망
- 종계 생산성 향상 및 종계 도태 지연으로 4분기 병아리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 병아리 생산이 늘어 도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2 ~ 내년 1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대비 약세 전망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8. 10. 29.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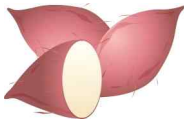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0kg	49,600	46,380	↑	3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715	37,800	38,373	↑	29.3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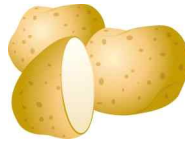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35kg	187,200	187,200	↑	7.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9,800	173,800	156,360	↑	19.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kg	33,800	34,800	↑	3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000	24,600	21,897	↑	54.4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0kg	42,200	45,400	↑	1.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000	41,500	23,643	↑	78.5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kg	7,800	8,200	-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400	-	5,067	↑	53.9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8kg	9,000	10,600	↑	5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600	5,700	4,497	↑	100.1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0개	34,333	43,333	↓	1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167	41,667	40,352	↓	14.9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0개	20,600	20,000	↑	4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750	14,400	15,840	↑	30.1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60kg	1,212,000	1,232,000	↓ 1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92,400	1,415,000	787,600	↑ 53.9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kg	39,800	41,0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0,700	32,900	33,760	↑ 17.9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0kg	130,000	13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0kg	13,600	14,500	↓ 4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050	24,900	21,367	↓ 36.4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0kg	60,800	60,800	↑ 4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7,300	41,750	36,050	↑ 68.7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kg	2,000	2,000	↑ 1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75	1,670	1,551	↑ 28.9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5kg	35,600	37,600	↑ 3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100	27,100	24,603	↑ 44.7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개	15,200	16,200	↑ 52.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900	10,000	8,307	↑ 83.0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kg	35,800	42,200	↑ 4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800	25,550	25,450	↑ 40.7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5kg	24,800	30,400	↑ 1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100	21,150	16,917	↑ 46.6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kg	36,600	38,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	38,417	↓ 4.7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5kg	37,800	38,000	↑ 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550	35,650	34,483	↑ 9.6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kg	24,600	25,800	↑ 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24,100	20,757	↑ 18.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0g	8,527	8,589	↑ 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78	8,352	7,531	↑ 13.2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kg	5,207	5,235	↓ 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36	5,483	5,570	↓ 6.5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30kg	496,800	498,4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0,600	502,000	518,800	↓ 4.2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kg	11,800	11,800	↑ 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650	11,300	11,970	↓ 1.4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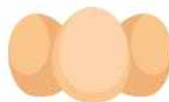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2kg	7,200	7,200	↓ 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75	7,950	8,117	↓ 11.3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00g	1,940	2,031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36	1,934	1,834	↑ 5.8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30개	5,269	5,374	↓ 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57	5,741	5,754	↓ 8.4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0/29)	1주일전 (10/22)	전년대비	
1L	2,621	2,621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0	2,518	2,538	↑	3.3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10. 29.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970	5,805	5,576	↑ 2.8	↑ 7.1	
	거세	6,406	6,541	6,419	↓ 2.1	↓ 0.2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910	3,238	2,957	↑ 20.8	↑ 32.2	
	수	3,841	4,007	3,517	↓ 4.1	↑ 9.2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62	3,702	3,0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	↑ 21.7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89	275	11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1	↑ 153.5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4	335	34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4.3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574	1,596	1,56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4	↑ 0.6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253	1,277	1,32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9	↓ 5.4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33	2,419	2,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6	↓ 8.7

곡성군, 석곡농협 유기농 백세미 수매 및 홍콩수출

-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석곡농협(조합장 김재경)은 10월 11일부터 백세미 수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3년차로써 계약 재배한 227농가 203ha에서 1차 매입(350톤)을 시작했으며, 가격은 40kg에 6만 7천원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입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다. 군과 농협은 앞으로도 최소 2회 이상 수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이번 수매에 지난 해 유근기 군수와 함께 백세미 홍보 및 판촉 행사를 진행했던 중국 섬서성 서안방송국 부국장 외 6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전했으며, 또한 백세미로 제조한 누룽지를 시식한 후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맛’이라며 극찬한 후 내년 봄 중국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 초청까지 받아 백세미의 글로벌 수출 판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매년 늘어난 계약재배 면적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출하량이 많아 고급 쌀로서의 판로가 쉽지 않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철저한 재배 관리와 농가 교육 및 국내외 판로 확보로 10월 16일 2018년산 백세미 7톤을 농협무역을 통해 홍콩으로 수출하였다.
- 석곡농협 한승준 전무는 “이번 수출은 주문자 생산 방식(수출상표명 : 월향미)으로 수출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백세미라는 우리상표로 수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쌀의 우수성을 해외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농가가 판로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백세미 누룽지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가마솥에 수제로 누룽지를 만들다 보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곡성군



전남농업기술원, 쌀 맥주 제조용 키트로 맥주 간편하게 만들자

- 체험 교육농장과 일반소비자의 수제맥주 키트 만족도 높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해 개발한 『쌀 60% 함유 수제맥주 제조용 키트』의 실용화를 위해 도내 농촌 교육농장과 연계해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이번 수제맥주 제조용 키트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맥아 60%를 쌀로 대체한 에일 타입 수제맥주 키트로 발효조, 당화액, 페트병, 홉, 효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쌀 고 함량 맥주 제조방법』으로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 전남농기원은 쌀 맥주 제조용 키트의 실용화를 위해 보성과 해남의 농촌 교육농장과 연계하여 일반소비자 45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수제맥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6개 평가분야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는 20 ~ 60대로 다양하였고 대상자 91.1%가 맥주 제조경험이 없었지만 5점 만점에 상품성 · 제품성 · 편리성 · 혁신성이 4.5점, 가격과 만족도는 3.7점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함께 참여한 농촌 교육농장 측에서도 자체 운영프로그램에 수제맥주 키트 체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이선경 연구사는 전남 쌀의 소비 확산을 위해 맥주 제조용 키트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이 완료되는 대로 고함량 쌀 맥주제조기술을 도내 업체에 이전하여 산업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석회유황 종자소독으로 벼 키다리병 크게 줄어

- 석회유황 종자소독 방제효과가 온탕소독보다 13배 이상 높아 -

- 전남도 내 19개 시군 227개소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키다리병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석회유황 종자소독법이 일반적인 온탕소독에 비해 발병주율이 1.63% 낮아 키다리병 방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벼 키다리병 평균 발병주율은 석회유황 종자소독법 0.13%(0.01 ~ 3% 범위), 온탕소독 1.76%(0.05 ~ 20% 범위), 종자소독 농약 1.05%로 석회유황 종자소독법이 온탕소독에 비해 13.5배 이상 병 발생량이 낮게 나타났다.
- 벼 종자전염성 병원 키다리병은 종자 발아 후부터 생육기 중에 벼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되고 결국 말라죽게 되는 병이며, 특히 육묘기에 발생이 많아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석회유황 종자소독법은 벼 키다리병을 99% 방제할 수 있으며, 소독비용도 일반재배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클로라즈유제와 플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보다 49% 이상 크게 줄일 수 있다.
- 또한, 일반재배에서 빈번한 약제저항성(내성)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는 달리 키다리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고 수발아 종자에 대해서도 모썽음병 등을 억제하면서 뿌리 발달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 올해 석회유황을 이용한 벼 종자소독을 실시한 도내 친환경재배 농가는 6,886호이고 면적은 전남 친환경 인증면적의 36%인 11,374ha로, 전년에 비해 20% 이상 확대되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겨울철 사료작물 적기에 파종합시다

- 적기파종, 눌러주기, 배수로, 벚짚수거 합시다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겨울철 사료작물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파종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 하였다.
- 겨울철 풀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5가지 핵심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첫째, 적기파종이다. 겨울 풀사료는 제때 파종해야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고 수량이 많아진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파종 적기가 9월 하순 ~ 10월 중순이고, 청보리는 11월 상순까지 파종을 마쳐야 한다.
- 둘째, 적량파종이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ha당 파종량은 입모중 50kg, 홀어부림 40kg, 줄부림 30kg 이고, 청보리는 홀어부림 200kg, 줄부림 130kg 내외로 하면 수확량이 많아진다.
- 셋째, 눌러주기(진압)를 잘해야 한다. 눌러주기를 잘하면 파종한 종자가 땅과 밀착이 잘 돼서 생육이 일정하게 나오고 겨울철 동해와 서릿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눌러주기를 안한 곳 보다 수량이 15%정도 늘어난다.
- 넷째,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 특히 청보리는 습해에 약해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습해로 인해 생육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줄어든다.
- 다섯째, 벼 수확 후 입모 중으로 파종한 곳은 벚짚을 바로 수거해야 한다.
- 논에서 입모 중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경우 벼 수확 후 벚짚을 빨리 걷어내고 밑거름을 주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품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 등을 리플릿, 교재 등으로 만들어 배부하여 축산농가 사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내년 벼농사 준비 지금부터~

- 벼짚은 논에 돌려주어 잡초발생 억제하고 땅심 높여 수량과 품질 향상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짚을 논에 넣어 주고 규산질 비료를 살포 하는 등 내년도 농사 준비를 지금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논토양의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콤바인 수확 시 벼짚을 3 ~ 4등분하여 10a당 400 ~ 600kg 정도 넣어준 후에 가을갈이를 해 주면 좋은데, 이를 통해 논 토양안의 유기물과 질소, 인산, 칼리 등 무기성분 함량이 증대된다.
- 논에 투입한 벼짚은 투입 2개월 후에 절반이 부숙되고, 2년 후에 90%가 분해되어 벼가 성장하는데 유익한 자양분으로 이용되는데, 벼짚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토양에 공급해 주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유효규산의 함량이 증가하고 땅심이 높아져 쌀 수량 증가와 함께 완전미 비율도 증대되며, 광엽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논에서는 잡초방제에도 효과가 있다.
- 논에서 생산되는 벼짚 500kg에는 질소 3.5, 인산 4.8, 칼리 17, 규산 52.5, 유기물 145kg 등 다양한 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논들은 대부분 규산함량이 부족한 산성토양으로 3년 주기로 공급되는 규산질 비료를 10a당 200kg 정도 살포해 주면 산성토양의 개량은 물론 벼를 튼튼하게 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여물 비율을 높여 수량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고기능성 딸기 신품종 개발 나서

- 비타민C, 엘라그산 등 항산화 성분 함량 우수 품종 육성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 품질을 강조하는 재배 농가의 요구에 따라 비타민C, 엘라그산 등 항산화 물질이 높게 함유되어 있고, 육질이 단단하며 저장성이 좋은 딸기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딸기는 우리나라 전체 과채류 생산액의 26.8%를 차지하는 중요한 원예 작물로서 국산 딸기 품종이 보급된 이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감소 추세로 기존과 차별화된 딸기 품종으로 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 당도, 경도 등 재배적 특성과 항산화 성분 함량이 우수한 5계통을 선발하여 특성 검정을 완료하였으며, 겨울에는 지역별 재배 특성과 수량, 저장성 등을 추가로 검정하여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가장 우수한 1계통을 오는 2020년 품종으로 출원할 계획이다.
- 전남지역의 딸기 재배면적은 826ha로 전국의 14%로 차지하고 있으며, 주 재배지역으로는 담양, 장성, 곡성, 강진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현미 효능 살리고 밥맛은 높이는 1% 미세도정

- 과피층 깎으니 식감은 백미, 기능 성분은 현미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현미의 기능성분은 살리고 밥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현미 외피층 1%를 깎아내는 미세도정법을 제시했다.
- 연구 결과, 현미의 과피층(1~2%)을 깎아내면 수분흡수율이 높아져 밥을 수월하게 지을 수 있고, 단단한 정도를 감소시켜 부드러운 식감의 현미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쌀 고유의 건강기능성분 함량은 현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현미는 왕겨를 벗겨낸 상태로, 과피층 1~2%, 씨껍질(종피) 및 호분층 4~6%, 쌀눈(배아) 2~3%, 배유(백미) 88~94%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영양소의 95%가 쌀눈과 호분층에 집중돼 있다.
- 현미 과피층은 낱알의 겉면을 코팅하듯 둘러싸 외부의 수분 흡수를 억제해 종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반면 이로 인해 밥 짓기가 어렵고 먹었을 때 소화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하이아미(멥쌀), 백진주(반찰쌀), 보석찰(찰쌀) 세 가지 품종을 미세 도정한 결과, 수분흡수율은 27.8~34.8%로 현미(19.3~25.5%)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성 등 고유의 기능성분도 현미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도정으로 인한 기능성분 손실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하이아미의 백미, 현미, 1% 미세도정 현미, 1% 미세도정 현미밥의 모습(왼쪽부터)〉

세계 최초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 개발

- 알레르기원 제거로 차별화... 해외시장 진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북대학교, 미국 농무성(USDA-ARS)과 협업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밀 『오프리』를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 오프리(O-free)는 국내 품종 금강과 올그루의 인공교배로 탄생했다. 오프리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하나인 오메가-5-글리아딘과 셀리악병의 원인인 저분자 글루테닌, 감마글리아딘, 알파 아밀라아제 인히비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단백질 분석과 혈청 반응 실험 결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빵이나 쿠키로 만들었을 때 가공 적성 또한 일반 밀과 차이가 없었다.
- 전 세계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은 연간 12조 원 규모로, 이번에 개발한 Non-GMO 밀 오프리는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외에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는 오프리는 일반 밀과의 혼입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해 계약재배로 보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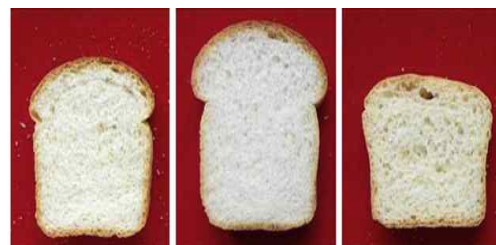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이삭〉



〈종자와 식물체〉



〈제빵적성, 오프리-금강-올그루〉

무 복합 파종기로 농가 일손 걱정 뚫

- 두둑 성형·비닐 피복·파종 동시 작업... 94% 노력 절감 효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무 복합 파종기를 개발했다.
- 무의 주요 농작업 기계화율은 2016년 기준 60.2%에 이르지만, 파종은 잘린 비닐이 작물에 닿으면서 죽는(열상) 문제로 활용하지 못해 기계화가 어려웠다.
- 이번에 개발한 파종기는 두둑 성형, 비닐 피복, 비닐 절개, 파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장치다.
- 열상 문제로 문제가 됐던 비닐절개 장치는 비닐을 직경 7cm 이상으로 절개하며 동시에 파종할 수 있게 설계해 열상 문제를 해결했다.
- 이 장치는 평두둑 2줄 재배용으로 한 번에 4줄을 파종할 수 있으며, 22, 24, 27cm로 줄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 개발한 장치를 무 재배 농가의 재배지에 적용한 결과, 파종 시 종자 개수는 평균 4.4개로 사람이 손으로 파종할 때의 3~5개와 비슷했다.
- 생육을 분석한 결과, 무가 자라 나오는 출현율은 봄무 97%, 가을무 98%로 손 파종과 차이가 없었다.
- 작업 성능은 0.7시간/10a로 손 파종(12.3시간/10a)에 비해 노동력을 94% 줄일 수 있었으며, 소요 비용은 57,246원/10a로 64% 절감 효과가 있었다.



무 복합 파종기

- 이번에 개발한 무 복합 파종기는 지속적으로 현장 적응성 시험을 거쳐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 후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시설재배지 농사, 병해충 방제부터 시작해야

- 겨울철 시설재배지 사전 방제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겨울철을 앞두고 시설재배지 병해충 관리를 위한 사전 방제법을 소개했다.
- 시설하우스는 생육 관리를 위해 겨울에도 실내온도를 15℃ 전후로 유지해 병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 특히 시설 딸기, 토마토, 오이 등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은 외부기온이 평균 1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주변 해충들이 추위를 피해 시설로 들어와 겨우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주로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및 노균병과 진딧물, 응애, 가루이, 총채벌레, 작은뿌리파리 등이 발생하는데 크기가 작아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시설재배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은 포자가 많아 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기 쉬워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 작물 아주심기(정식) 전에는 균형시비와 통풍시설 설치 등 환경관리를 해준다. 병원균이 시설하우스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시설 내부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시설 내부가 저온다습해지지 않도록 환기와 난방을 통해 온·습도 조절을 한다.
- 아주심기 후에는 주기적으로 포장을 관찰해 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병든 부위를 즉시 없애 병원균 밀도를 줄인다.
- 해충 밀도가 낮은 생육 초기에는 외부 유입통로에 끈끈이 트랩을 걸어 유인하거나 천적을 풀어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작물에 발생하는 목화진딧물의 경우 콜레마니진디벌을 100마리/10a(발생 전, 매주), 500마리/10a(발생 후, 2주 간격) 밀도로 살포해 해충 밀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오이 및 토마토에 주로 발생하는 오이충채벌레는 발생 직후 오이 이리응애(10만 마리/10a), 애꽃노린재(1천 마리/10a) 등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 병해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에는 작물별로 등록된 방제적용 약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은 약제저항성이 쉽게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오이, 토마토, 딸기에 적용 가능한 약제에는 보스칼리드, 프로사이미돈, 플루디옥소닐 등이 있으며(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적용약제에는 펜티오피라드, 디페노코나졸(오이, 딸기) 등이 있다.
- 해충 방제 시 목화진딧물은 피메트로진 입상수화제,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오이, 딸기) 등 적용약제가 등록돼 있으며 오이충채벌레는 클로르페나피르 유제(오이, 토마토) 등이 사용 가능하다.
- 특정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작목반, 영농조합 등 주위 농가가 연계해서 공동 방제한다. 공동 방제를 할 때는 초겨울에 동일 계통 약제로 1차 방제하고, 초봄에 다른 계통의 동일 약제로 2차 방제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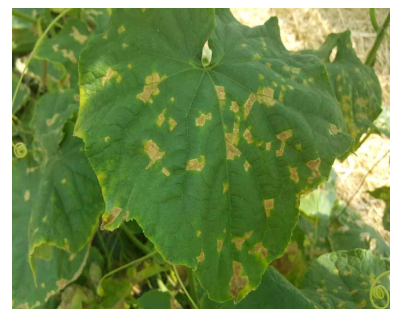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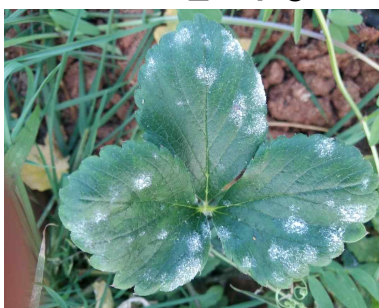
토마토 흰가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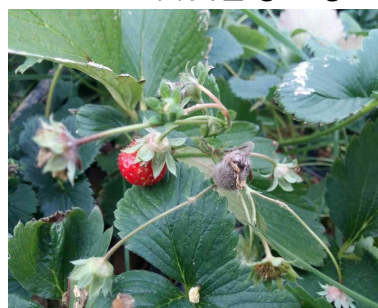
토마토 잿빛곰팡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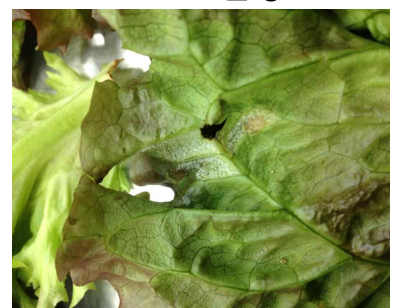
오이 노균병



딸기 흰가루병



딸기 잿빛곰팡이병



상추 노균병

전남도,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확대

- 농협 계약재배 농가 소득 안정위해 기준가격의 80% 수준 보장 -

- 전라남도는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 안정을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은 재배농가가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자율적으로 면적 조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 전라남도는 주기적인 가격 등락으로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어려운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 7만 7천톤에 대해 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사업량은 전년보다 3만 1천여톤 늘어난 규모다. 김장용 무, 배추는 물론 2019년 수확하는 양파, 마늘과 같은 양념채소에 대해 5개년 평균 도매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품목별 재배농가가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하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많은 농가가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해남군, 농수축산물 가공 5곳과 투자협약

- 290억 원 규모로 200여 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24일 해남군청에서 농수축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5개 기업과 총 290억 원을 투자해 2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주)에코드림팜은 해남 땅끝식품특화단지 6천 237㎡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난황유 및 난백분 가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6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품은 독일 제약회사에 수출하고, 국내 제약회사, 화장품, 제과제빵회사 등에도 납품한다.
- 해남버섯(주)은 해남 마산면 송석리 8천 265㎡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버섯종균 배양시설을 갖추게 된다. 6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된 버섯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국내 농협유통센터 등 대형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다.
- 고천암수산2는 해남 황산면 한자리 4천 351㎡ 부지에 6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마른김 등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35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품은 대창식품 등 식품 가공회사에 납품하고, 향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하며, 미국, 일본 등에 수출도 할 계획이다.
- 구슬샘영농조합법인은 해남 옥천면 용산리 2천892㎡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쌀 등 곡물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15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품은 대도시 중견마트 등에 납품하고, 친환경쌀 인증을 받아 학교급식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 자연채는 해남 문내면 서상리 4천071㎡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절임배추 및 김치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30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품은 롯데마트 등에 납품되며,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학교와 관공서 등에도 납품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곡성군, 더 간편하고 더 맛있는 토란 가공품 개발

- 2018 토란활용 가공품 개발 및 기술실용화사업 결과 평가회 개최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0월 24일 토란 생산과 가공에 관련 있는 농업인, 관련업체,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란활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기술 실용화 사업』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깐토란 저장성 향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토란파이, 토란약과 등 토란을 활용한 가공품 2종과 토란 스프 등 토란 음식 간편 레시피 3종을 선보였다.
- 특히 간편 레시피를 통해 조리된 요리와 가공품을 시식하고, 간편 레시피 중 토란 피자를 즉석에서 조리 시연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토란 요리가 15분 내에 간편히 조리되는 것에 놀라워했다.
- 곡성군은 평가회를 계기로 지역 내에 토란 가공기술뿐만 아니라 토란을 더 간편하고 더 맛있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토란 간편 레시피를 더욱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 토란을 곡성 대표농산물로 자리매김 시켜 토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직거래 판매에도 연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인 셈이다.

* 출처 : 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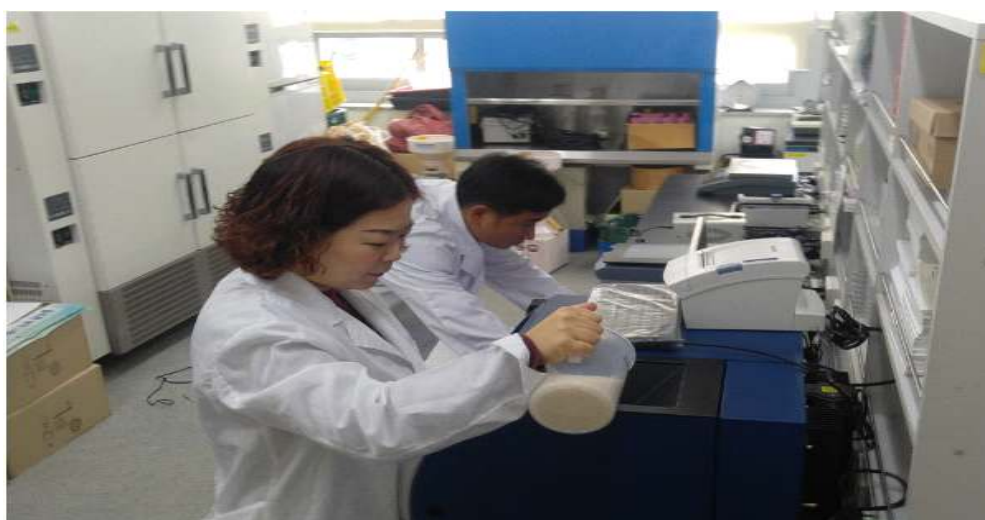


고흥군, 쌀 품질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 고품질 쌀 생산 위한 완전미 비율, 단백질 함량 측정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쌀 품질 및 성분을 분석해 알려주는 『쌀 품질분석 서비스』운영에 나섰다.
- 농업기술센터 쌀 품질분석실에서는 쌀 외관검사를 하는 미립판별기로 정상립, 미숙립, 싸라기 등 비율을 알려주고 성분분석기로 밥맛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등의 함량을 측정해 준다. 또한 벼 유전자 분석 장비를 통해 품종도 판단할 수 있다.
- 쌀 품질분석은 고흥군 농업인이라면 무료로 받으며, 시료량 벼 500g (종이컵 3컵)을 봉투에 담아 연락처, 품종, 도복 유무 등을 기재해 의뢰하면 7일 이내에 쌀 품질분석표를 받아 볼 수 있다.
- 쌀 품질분석표는 쌀의 품질을 수치화하여 쉽게 알 수 있으며, 농업인은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적정 토양관리 등 과학영농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품질분석 서비스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도입해 고흥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무안군, 스테비아를 이용한 기능성 양파 특허 획득

- 주요 기능성분인 퀘르세틴 성분 93.7% 더 높아 -

- 무안군(군수 김산)의 양파 재배 선도농가가 스테비아 액비를 이용한 기능성 양파 재배법과 양파즙 특허를 획득해 화제다.
- 무안군 몽탄면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김덕형 농가는 『스테비아 액비를 이용한 기능성 스테비아 양파 재배방법 및 그 스테비아 이용한 양파즙』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받았다.
- 스테비아는 국화과 다년생 식물로 단맛이 설탕의 200배에 이르고 독성이 없어서 천연감미료 작물로 알려져 있다. 스테비아 추출물을 이용한 화초,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유기질 액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특허는 김덕형 씨가 스테비아를 직접 재배해서 만든 스테비아 발효 액비를 사용하였다. 양파가 본격 생육하는 2월 상순부터 약 15일 간격으로 6회 이상 살포해 기능성이 강화된 스테비아 양파를 생산했다.
- 일반양파와 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페놀 함량은 72.6%,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13%, 양파의 주요 기능성분인 퀘르세틴은 93.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파의 퀘르세틴은 관련 학계에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 속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차단하는 항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 출처 : 무안군



장성군, 신소득 컬러과일 뜬다

- 샤인머스켓(청포도)·레드향 기존 품종 대비 2배 소득 내며 빠르게 정착 -

- 장성군은 신규 소득작목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가와 손잡고 다채로운 칼라 과일 생산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 중 샤인머스켓(청포도)과 레드향이 기존 품종보다 두 배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어 컬러과일 생산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청포도 품종 중 하나인 샤인머스켓은 기존 품종인 캠벨얼리, 자옥과 대비해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고, 장성 포도 생산의 중심지인 삼서면을 중심으로 13ha 가까이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 기존 포도(캠벨얼리)의 경우 고온에 약해 최근 3년 동안 전체 농가의 70%에서 미숙과가 발생하는 등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청포도는 고온장해로 인한 착색불량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한 레드향도 1,000㎡당 1,300만원의 소득을 기록하며 천혜향이나 한라봉 같은 만감류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내고 있다.
-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1.7ha의 하우스 단지가 세워진 데 이어 올해도 1.7ha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다.
- 레드향은 다른 작물에 비해 일손이 적게 들어 고령의 농업인에게도 특히 적합한 작목으로 알려져 있어 장성군이 고소득 작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장성군은 옐로우시티의 컬러도시 이미지에 발맞춰 다양한 컬러 과일 육성에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옐로우프루트 사업의 일환으로 황도복숭아, 청포도, 노란사과 3종을 선정해 새로운 과일 시장 창출도 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2017년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에 응모해 6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장성군이 6억 4000만 원을 더해 옐로우프루트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장성군

태국, 과일 시장 동향

- 2017년 태국 과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620만 톤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이 5%씩 성장해 7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은 열대지방으로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 유명하다. 태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재배하기 힘든 사과, 포도, 크랜베리,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등의 수입 과일에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태국산 열대과일은 여전히 수입과일에 비해 인기가 더 많다.
- 태국산 과일은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 및 현지 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수입과일은 빌라마켓과 같은 프리미엄 슈퍼마켓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 이에 태국산 과일이 가격, 품질, 다양한 유통망 및 상품들로 인해 계속해서 태국 과일 시장에 우위를 점할 것이다.
- 각 농장 및 브랜드 제품은 프리미엄급, 수입 과일, 유기농 또는 특산품에 초점을 맞춘 틈새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 이는 태국산 과일의 이윤이 적어 소비자들이 좀 더 높은 가격대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제품 차별화 전략이다.
- 가격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도 높은 품질의 적정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 바나나는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이다.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고 먹기 편리하며 격렬한 운동 중에도 효과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주어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 파인애플과 사과는 각 2위, 3위를 차지했고, 수박과 망고 또한 태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 반면에 아보카도, 체리, 딸기와 같은 수입과일들은 일반 태국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때문에 작은 틈새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 시사점은 태국에서 과일은 대·소형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있다.
- 하지만 중산층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식품을 구매를 원하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또는 마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 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산 과일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과일과의 경쟁해야 한다.
- 수입과일은 해당국의 관세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층들에게 높은 가격은 일반 과일에 비해 가격에 따른 영향보다는 맛과 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맛은 물론이고 품질관리 및 신선유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일본, 사과 생산 및 수출동향

- 일본농업신문은 재무성 무역통계를 인용하여 2017년산('17년 9월 ~ '18년 8월) 사과 3만 3,150만톤을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 2017년산 사과 수출량은 사과 수출이 가장 많았던 15년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중화권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대과종과 중저가의 소과종이 판로 확대의 결과로 보고 있다.
- '15년산 수출이 높았던 원인은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춘절 등 선물용 대과종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16년산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작황부진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대과종 생산량이 적어 일본산 가격 상승으로 수출 거래량이 2만 7,558톤으로 줄어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 동남아시아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소과종의 수요가 확대되어 수출실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의 사과산지 관계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소과종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소득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 올해 8월까지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은 대만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2만 3,519톤으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가 전년의 3.9배인 106톤, 태국이 2.7배인 695톤, 베트남이 83% 증가한 299톤이다.
- 일본은 해외시장의 고급 선물용으로 크기가 큰 사과 위주로 수출했으나, 중간소득 계층 소비자를 타깃으로 대만시장 등에 작은 크기 사과를 수출해 수출량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과 주산지 아오모리현에서는 사과 과즙을 사용한 주스를 주력상품으로 수출하고 있다.
-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타깃 수출시장 및 소비자별로 제안 상품을 차별화해 나간다면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0.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환매수와 수출 수요 개선으로 급등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7%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환매수와 수출 수요 개선으로 상승했다. 한 무역업자가 곡물 거래의 큰손이 미국산 밀 50만 부셀을 현물시장의 가격보다 10% 높은 부셀 당 80센트에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농림부는 2018/19년 밀 수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1.9%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최근 월스트리트 주가 변동 속 원자재 부문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했다. 미 중서부 지역의 비가 옥수수 벨트 중앙과 동부를 관통하면서 수확 지연이 우려돼 상승세를 더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환매수와 신규 수출 판매로 인해 상승했다. 미 농무부는 미확인된 목적지에 민간 대두 26만 톤이 판매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밀과 옥수수 선물가격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더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축산업도 스마트팜 시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도, 2019년 국비 21억 확보해 30일까지 예비컨설팅 접수 -

- 전라남도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축산 스마트팜 사업비 70억 원 가운데 국비 21억 원을 확보,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예비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축산 스마트팜 사업은 시설 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와 신축·개축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축사 내·외부 환경(온·습도, Co2, 풍속, 풍향, 정전, 화재, 악취 등) 모니터링 장비 △사육단계별 사료 자동급이기, 선별기, 사료 관리기, 음수관리기, 자동포유기 등 자동·원격제어 장비 △축사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시설·장비를 설치하게 된다.
- 지원 조건은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이다. 융자금은 대출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2%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 전라남도는 2014년부터 돼지를 시작으로 닭, 젓소, 한우, 오리, 사슴으로 축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230호에 139억 원을 지원했다.
- 축산농가에서는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개체 정보, 건강 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을 분석하고, 사료 급여량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효과적 사양관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이 가능하다.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분만율 2.5% 향상, 출하 시 등급 6.9% 개선, 사료비 9.2%와 고용노동비 6.6%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체험 여행

- 11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을 선정·발표했다.
- 11월 추천 여행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 소개

지역	여행지	위치	체험	주변 관광지
경기권	교동장독대마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오감만족 삼시세끼, 우리쌀클레이, 농산물 푸드테라피, 전통고추장 체험, 쿠키 클레이 만들기	한탄강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 산정 호수 등
강원권	사재산마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상안 8길 9-14	가마솥 밥짓기, 국궁, 카트 마을 투어, 안흥찐빵 만들기, 떡메치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태기산 풍력단지, 천태산자연휴양림, 섬강둘레길 등
충청권	알토란사과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길 81	사과설기떡 만들기, 사과잼 만들기, 사과비누 만들기, 사과 파이 만들기, 사과따기 등	덕산스파캐슬, 수덕사, 가야산, 덕산 도립공원, 예당저수지, 추사고택, 예산황새 공원
전라권	원색장마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쐼는길 330	자전거 마을 투어, 열무김치 만들기, 쿠키 만들기, 다육이 심기, 김장김치 담그기, 배 수확, 메주/된장/간장 담그기, 에코백 만들기 등	각사비위, 전주한옥마을, 아중리 레일바이크, 아중호수, 천주교 성지 등
경상권	빛돌배기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5번길 51-17	단감 수확, 단감파이 만들기, 감말랭이 마들렌 만들기, 단감 비빔밥, 갯통열차 마을투어, 가을 벼수확 4종 체험 등	주남저수지, 창원 해양공원, 창원과학 체험관, 마금산온천, 창동예술촌, 단감 테마파크 등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렴한세상 - 청백리 김취문 선생 일화



김취문선생이 둘째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할때, 근처 마을에 부유하다고 소문난 유공륜이 그의 집에 중매장이를 보냈다. 중매장이는 승지인 김취문선생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수저대신 표주박을 쓰는 것을 보고 유진사에게 혼인하지 말것을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진사는 김취문선생의 그러한 청렴함을 오히려 칭송하고 딸을 시집보냈다고 한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07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